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번호 | 2613 |
|------|------|

2025. 4. 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문성호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4. 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문성호 의원)

1. 주문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포함, 모든 지자체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순히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뽐낼 좋은 기회로 만들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2027년에 개최될 제41차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통칭 WYD)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선포하였음.
- 현재 특정 종교의 행사라는 점 때문에 반발 혹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도 직접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각 기관은 물론, 지자체 역시 힘을 모아야 함.
- 또한 WYD를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역사적 우수함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문화 및 유산의 인류 학술적 고가치에 대해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함.
- 이에 2027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건의안의 개요

- 동 건의안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가톨릭 교회가 1986년부터 매 2~3년 단위로 개최하여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국제 규모의 행사로 2027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 현재 국회에는 2027년 대회가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골자로 2개의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¹⁾.
-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23년 12월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24년 7월 발대식을 가진 후 8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였음.
- 조직위는 1986년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까지 16회의 행사에서 총 2,48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1) 김상훈·김병기 의원 등 59인 발의안(2024. 11. 7.), 성일종 의원 등 11인 발의안(2024. 11. 19.)

집계하고 있으며, 서울 대회에서는 최소 4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세계청년대회 역대 개최 현황 >

| 연번 | 연도 | 개최기간 | 국가 | 도시 | 참석자수(명) |
|----|-------|--------------|-------|--------------|-------------|
| 1 | 1986년 | 3. 23. | 이탈리아 | 로마 | 300,000 |
| 2 | 1987년 | 4. 11. ~ 12.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 | 1,000,000 |
| 3 | 1989년 | 8. 15. ~ 20. | 스페인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 400,000 |
| 4 | 1991년 | 8. 10. ~ 15. | 폴란드 | 체스토호바 | 1,600,000 |
| 5 | 1993년 | 8. 10. ~ 15. | 미국 | 덴버 | 500,000 |
| 6 | 1995년 | 1. 10. ~ 15. | 필리핀 | 마닐라 | 4,000,000 |
| 7 | 1997년 | 8. 19. ~ 24. | 프랑스 | 파리 | 1,200,000 |
| 8 | 2000년 | 8. 15. ~ 20. | 이탈리아 | 로마 | 2,000,000 |
| 9 | 2002년 | 7. 23. ~ 28. | 캐나다 | 토론토 | 800,000 |
| 10 | 2005년 | 8. 16. ~ 21. | 독일 | 쾰른 | 1,200,000 |
| 11 | 2008년 | 7. 15. ~ 20. | 호주 | 시드니 | 400,000 |
| 12 | 2011년 | 8. 16. ~ 21. | 스페인 | 마드리드 | 2,000,000 |
| 13 | 2013년 | 7. 23. ~ 28. | 브라질 | 리우데자네이루 | 3,700,000 |
| 14 | 2016년 | 7. 26. ~ 31. | 폴란드 | 크라쿠프 | 3,500,000 |
| 15 | 2019년 | 1. 22. ~ 27. | 파나마 | 파나마시티 | 700,000 |
| 16 | 2023년 | 8. 1. ~ 6. | 포르투갈 | 리스본 | 1,500,000 |
| 17 | 2027년 | 8월(예정) | 대한민국 | 서울 | 400,000(예상) |

○ 다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라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행사의 특성상 타 종교계의 반발 또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주요 내용 검토

○ 동 건의안은 ▲세계청년대회의 개요 및 서울 개최, ▲세계청년대회의 가치,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촉구 등 크게 세 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UN이 1985년을 ‘세계 청년의 해’로 정하자 가톨릭 교회는 같은 해 3월 로마에서 국제청년대회를 가졌고, 같은 해 4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계 젊은이의 날’을 정해 1986년 3월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었음.
- 이후 대회는 2~3년 간격으로 대륙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개·폐막 미사, 교리교육, 참회예절 및 고해성사, 십자가의 길, 밤샘 기도 등을 주요 일정으로 하고, 특히 폐막 미사에서는 교황이 직접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개최지를 발표해 왔음.
- 서울은 지난 대회였던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개최지로 발표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교황의 방한은 1984년, 1989년, 2014년에 이어 역대 네 번째 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임.
- 조직위는 서울 대회에 참석하는 방문자를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결과 생산 유발 효과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5,908억 원 및 고용 유발 효과 2만 4,725명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과거 국내에서 개최된 세계적 규모의 대표적인 행사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경우 방문자 수가 각각 90만 명, 11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실제로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 그 영향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청년대회 경제적 파급효과(추정치) >

○ **2023 리스본 대회**

- 생산유발효과 8억 1,100만 유로(1조 1,96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억 1,100만 유로(6,061억원)

○ **2013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 총 경제적 효과 약 19억 헤알(1조 450억원)
- 참가자 지출 통한 직접적인 기여 약 9억 2,000만 헤알(5,060억원) 및 간접적 영향 약 9억 8천만 헤알(5,390억원)

○ **2011 마드리드 대회**

- 마드리드 지역 1억 4,800만 유로(2,309억원)
- 고용유발효과 약 1만명(직접 고용 3,000명, 간접 고용 7,000명)

○ 동 건의안은 서울 대회의 경제적 가치와는 별개로 대회를 통해 종교를 넘어, 분단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도 꽃피워 온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국내 헌법 및 법령상 종교는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및 서울시는 종교를 문화의 한 분야로 분류하여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5년도 서울시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 예산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2024년 | | 2025예산(안) (B) | 증감 (B-A) | (B-A)*100/A |
|----------|-----------|-----------|------------------|----------|-------------|
| | 본예산 | 최종예산 (A) | | | |
| 계 | 3,600,000 | 4,905,000 | 4,347,500 | △557,500 | △11 |
| 사무관리비 | 50,000 | 50,000 | 95,000 | 45,000 | 90 |
| 민간행사사업보조 | 3,550,000 | 4,855,000 | 4,252,500 | △602,500 | △12 |

- 특별법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던 사례가 다수 있었던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제행사 지원 특별법 입법 현황 >

| 연번 | 제정연도 | 법률명 |
|----|-------|-------------------------------------------|
| 1 | 2008년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 2 | 2009년 | 「포물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
| 3 | 2012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4 | 2012년 |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
| 5 | 2018년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
| 6 | 2021년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 이에 대하여 불교계에서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안의 내용 중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순례지관련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²⁾을 위배한다는 입장임.

기독교계 또한 언론을 통해 법률로써 정부가 특정 종교와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교황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동시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라는 점에서 세계청년대회는 한 국가의 원수를 중심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이므로 특별법 제정의 찬반과는 별개로 행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함.

2) 「헌법」 제20조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동 건의안에 대하여 서울시 문화본부는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종교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서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민간행사에 대하여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대회를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사안인바 국회와 중앙정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의안번호
2613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 제 안 자 | 제안일자 | 소관 상임위 | | |
|--------------------------|----------------------------------------------------------------------------------------------------------------------------------------------------------------------------------------------------------------------------------------------------------------------------------------------------------------------------------------------------------------------------------------------------------------------------------------------------------------------------------------|--------------|-----------------|-----------|-----------------|
| | | 문성호 의원 외 12명 | 2025.3.3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에 개최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는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2024.11.7.)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건의함 | | | | |
| 추진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국회 심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상훈·김병기 의원안 : 발의 '24.11. 7. → 상정(제420회 국회) '25.1.10. → 계류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성일종 의원안 : 발의 '24.11. 19. → 상정(제420회 국회) '25.1.10. → 계류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 |
| 부 서 검 토 의 건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O) | | | | |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종교 행사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서 민관의 다각적 협력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입장도 있으나,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종교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대회 개최·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타 종교계의 특별법 제정 반대의견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회의 취지, 일정, 규모, 운영 방식 및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에, 국회 소관위원회에서도 계류 중인 특별법에 대한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 | | |
| 대응방안 | ○ 해당 사항 없음 | | | | |
| 상 임 위 처 리 결 과 | ○ | | | | |
| 향 후 계 획 | ○ ○ | | | | |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팀장 | 강은주(☎2133-2520) | 담당 | 송기정(☎2133-2525)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261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문성호, 고광민, 김규남,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윤영희, 최민규,
최호정 의원(13명)

1. 주문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포함, 모든 지자체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순히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뽐낼 좋은 기회로 만들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2027년에 개최될 제41차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통칭 WYD)의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선포하였음
- 현재 특정 종교의 행사라는 점 때문에 반발 혹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대거 참여할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도 직접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므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 각 기관은 물론, 지자체 역시 힘을 모아야 함
- 또한 WYD를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만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이룩한 역사적 우수함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문화 및 유산의 인류 학술적 고가치에 대해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함

- 이에 2027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지자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

두 번의 세계적인 전쟁이 끝나고 그 상처가 점점 아물어가는 와중에 세계는 다시 냉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의 두려움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바티칸의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세계 속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예수가 수난받고 죽은 지 1950년이 되는 해인 1983년부터 1984년까지, 희년을 선포하며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UN은 국제 젊은이의 해(International Year of Youth)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교황은 세계 속 젊은이들을 로마 바티칸으로 직접 초대하여 함께 손은 맞잡고 희망찬 내일을 서로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초대에 무려 30만 명의 청년이 응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황은 이러한 청년들의 응답에 대해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미래를 바라보려 하며, 그들의 약속을 새롭게 그리고 굳게 하고자 하는 열의를 느끼고 있다.'라 평하며 1985년, 세계 청년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첫 번째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2023년에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코로나19도 극복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계적인 청년의 날을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 개최지 중 유일하게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아닌 국가라는 점, 휴전국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희망과 용기를 위해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 각 기관은 물론 개최지인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모든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비록 세계청년대회의 개최 주관은 바티칸의 가톨릭 교황청이고 참석하는 이들은 가톨릭 신자 청년들입니다만, 우리는 이 행사를 단순히 가톨릭 종교 세계관에서만의 행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군으로부터 내려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종묘사직을 이어가는 우리 고유의 믿음은 물론, 천 년이 넘도록 한반도 각지에서 자비를 가르쳐 온 불교, 피로 증거하며 신앙을 뿌리내린 가톨릭, 일제와 북괴의 총칼에서도 굴하지 않은 개신교 등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문화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가슴속에 박힌 진정한 자유에 대한 상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휴전 중이라 섬나라나 다름없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세계만방에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유산을 알릴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내 유구한 세월 속 고요함과 자비함을 간직해온 전통 사찰들은 지난 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에게 많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특정 종교에서의 행사가 아닌,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이 이룩한 역사적 우수함과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문화와 유산의 인류 학술적 고가치에 대해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김상훈 국회의원 등 59인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제418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2027년이 벌써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우수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을 근거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 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하루 빨리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5. 3. 31.

서울특별시의회의의원 일동